



중학생의 약물남용 비잠재군과 잠재군의 제특성 차이*

김 영 혜¹⁾ · 어 용 숙²⁾ · 주 현 옥³⁾

1)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2) 춘해대학 간호과 전임강사, 3)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전임강사

= Abstract =

A Study on the Differences of Characteristics between Potential Substance-abuse Group and Healthy Group in Middle School Students*

Kim, Young-Hae¹⁾ · Eo, Yong-Sook²⁾ · Ju, Hyeon-Ok³⁾

1) *Department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2) *Department of Nursing, Choon-hae College*
 3) *Department of Nursing, Dong-A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attempted to find out the differences of characteristics between potential substance-abuse group and healthy group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Busan. **Method:** The participants were 458 middle school students in Busan.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st September 2004 to 31th October 2004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then were analyzed by SPSS-WIN 10.0 program with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and χ^2 -test. **Results:** 23.6% of the subjects have been smoking, and 16.2% of them have been drinking. 18.6% of the subjects was classified to potential substance-abuse group based on the cut-point suggested by Lee et al.. The characteristics of potential substance-abuse adolescents are that they have religion and siblings, that their parents have divorced, that they don't live with their parents, and that their perceived health state is bad. **Conclusion:**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ubstance abuse prevention education program for potential substance-abuse group.

Key words : Substance abuse, SPDA

주요어 : 약물남용, 잠재적 약물남용 청소년 선별척도(SPDA)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This work was supported for two years by Pusan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Grant.

교신저자 : 어용숙(E-mail: nursinge@choonhae.ac.kr)

투고일: 2006년 4월 4일 심사완료일: 2006년 7월 11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Eo, Yong-Sook(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Nursing, Choonhae College

72-10 Gokcheon-ri, Ungchon-myeon, Ulsan-gun, Ulsan 689-784, Korea

Tel: 82-52-270-0186 Fax: 82-52-270-0189 E-mail: nursinge@choonhae.ac.kr

서론

연구의 필요성

약물남용은 내일의 꿈을 향하여 밝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될 청소년의 정신과 육체를 황폐화시키며, 가정과 학교 및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Burge, Felts, Chenier, & Parrillo, 1995; Chong, 1998). 최근에는 일부 비행 청소년만의 문제로 알려졌던 약물남용이 고교생은 물론이고 중학생에게도 확산되고 있다(Min, 2000). 미국의 경우 12학년 80-90% 학생이 음주를, 62%에서 흡연을, 35%의 학생이 마리화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음주, 흡연 및 마약 등의 약물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O'Leary et al., 2002). 한국의 경우 일반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40.3%가 음주를, 19.6%가 흡연을 한 경험이 있었으며 환각목적으로 진통제를 사용해본 학생도 1.8%가 있었다(Won, 2003). 이들 학생들 중 일부는 본드나 신나 등을 흡입하고 환각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탄가스를 흡입하던 중 폭발하여 죽거나 다치는 경우도 있음을 보고하였다.

청소년의 약물남용은 청소년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범죄 또는 다른 약물의 중독으로 이어지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2003). 이는 각종 청소년 범죄의 이면에는 알코올 및 약물중독이 크게 자리잡고 있고(Golub & Johnson, 1999; Kim, 2002), 술이나 담배 기타 약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연간 수조원에 이를 정도로 약물남용은 이제 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족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은 일단 약물 남용을 시작하게 되면 급속도로 중독에 이르게 되며 쉽게 여러 약물을 복합적으로 남용하게 되고(Cho & Joo, 1997; Jeong, 2004), 약물에 빠지게 되면 성인기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지 못하여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의 약물남용은 중독속도가 성인 남성의 8-10년이 소요되는 반면 15세의 청소년은 15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더 빨리 진행되며, 대인관계 악화의 속도도 급속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피해가 성인보다 더 심각하다(Moon, 2003).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약물남용 교육은 성인의 경우와는 달리 사후중재보다는 예방중심의 사전교육이 중요하다(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1998). 뿐만 아니라 청소년은 정신 및 신체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있으므로 약물에 접할 수 있는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는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예방적 접근은 담배, 알코올 또는 다른 약물을 아직 사용하

지 않은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접근과 이미 약물을 사용하는 집단을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집단과 구분하여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선별적 접근이 있다. 특히 선별적 접근은 약물예방교육을 실시할 때 중심이 되는 표적 집단을 설정하고, 이들 집단의 특성별로 접근을 하므로 약물남용과 같은 건강위해행위의 개선에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다(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2003). 이는 청소년의 약물사용이 생물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들 모든 요인들을 고려하여 약물사용에 대한 취약한 집단을 선별하고 이들 집단에 예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Lee, Im, Park, Yun과 Park(2004)은 현재 약물을 사용하는 집단뿐만 아니라 약물남용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잠재적 약물남용 청소년 선별척도'를 개발하였다. 특히 약물남용 위험성이 높은 집단을 '약물남용 잠재군'으로, 약물남용 위험성이 낮은 집단을 '약물남용 비잠재군'으로 구분하여 이들 집단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약물남용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약물남용 비잠재군과 잠재군을 선별하고, 이들 집단의 특성을 비교하여 청소년의 약물사용 특성에 따라 적합한 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음주, 흡연 등 약물남용 실태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약물남용 비잠재군과 잠재군을 파악한다.
- 약물남용 비잠재군과 잠재군의 차이를 파악한다.

용어의 정의

• 약물남용 비잠재군

현재 약물(술, 담배 및 기타 마약류)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 약물사용 위험이 낮은 집단으로 Lee 등(2004)이 개발한 '잠재적 약물남용 청소년 선별척도'(Screening Scale for Potential Drug Use Adolescents, 이하 SPDA라 칭함) 점수가 73점 미만인 경우이다.

• 약물남용 잠재군

현재 약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약물 사용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집단으로 SPDA점수가 73점 이상인 경우이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학생의 약물남용 비잠재군과 잠재군을 선별하고, 이들 집단의 특성 차이를 살펴보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먼저, 부산광역시 6개구 교육청 산하의 남녀 중학교 교장에게 '마약퇴치운동본부' 및 '약물 없는 부산운동본부'의 협조공문을 보내어 동의를 구한 후에 각 구당 1개교씩 대상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학교의 담임교사와 보건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이 가능한 1, 2학년층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에 걸린 시간은 약 20분 정도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4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었으며 총 대상자수는 458명이었다.

연구 도구

● 잠재적 약물남용 청소년 선별척도

본 연구에 사용한 '잠재적 약물남용 청소년 선별척도'(SPDA)는 Lee 등(2004)이 개발한 도구로 총 35문항의 4개의 대범주(약물, 부모, 학교 및 친구, 개인) 하에 8개의 하위요인(음주, 흡연, 약물, 부모관계, 부모의 약물행동인지, 학교 및 친구, 과감성 및 충동성, 개인적 성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로 응답하게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약물남용 가능성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장점은 약물사용에 대한 '약물남용 잠재군'을 선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SPDA 총점이 73점 이상일 경우는 현재 약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약물남용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구개발당시 안면타당도, 내용타당도, 구성타당도가 검증되었으며, 신뢰도는 중·고등학생 2991명을 대상으로 한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2003)의 연구에서 Cronbach's가 0.89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가 0.97로 나타났다.

● 약물사용빈도

약물사용빈도는 Lee 등(2004)이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지난 1년간 담배, 술, 본드, 각성제, 수면제, 대마초, 그 외의 마약류에 대한 사용빈도에 대해 6가지로

구분하여 측정하는데, 즉 각각의 약물에 대해 '전혀없다', '1년에 1-2번', '6개월에 1-2번', '한달에 1-2번', '일주일에 1-2번' 및 '거의 매일'로 표시되어 있다.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약물사용빈도는 빈도와 백분율로, 잠재적 약물사용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약물사용 비잠재군과 잠재군의 차이는 χ^2 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55.9%로 여학생 44.1%보다 많았으며, 전체의 70%가 중학교 2학년이었다. 종교는 과반수 이상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59.4%), 전체대상자의 63%가 형제가 있었다. 연구대상자의 88% 부모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고, 부모와 함께 기거하는 대상자가 94.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한달 용돈은 전체대상자의 75.5%가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58)

특성	구분	n(%)
성별	남자	256(55.9)
	여자	202(44.1)
학년	1학년	136(29.7)
	2학년	322(70.3)
종교	있음	186(40.6)
	없음	272(59.4)
형제	있음	289(63.1)
	없음	140(30.6)
부모의 결혼상태	이혼함	36(7.9)
	이혼하지 않음	403(88.0)
	별거 등 기타	19(4.1)
거주상태	부모와 함께 동거	432(94.3)
	자취 및 하숙	26(5.7)
한달용돈	100,000 이하	346(75.5)
	110,000 이상	41(9.0)
	무응답	71(15.5)
건강상태지각	건강함	279(60.9)
	보통	115(25.1)
	건강하지 않음	64(14.0)

10만원 미만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상자의 건강상태 지각은 60.9%가 건강하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약물사용 빈도

대상자의 약물사용빈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대상자의 71.2%가 흡연 경험이 전혀 없으며, 28.8%가 흡연 경험이 있었다. 특히 거의 매일 흡연을 하는 대상자도 7.2%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전체 대상자의 69.7%가 음주 경험이 전혀 없으며, 30.3%는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의 매일 음주는 하는 대상자는 3.1%이었다. 본드와 수면제, 각성제, 대마초 및 기타 마약류는 전체 대상자의 95% 이상이 전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면제의 경우 1달에 1-2번 사용하는 대상자가 3.3%로 나타나 사용자가 1% 이하로 조사된 다른 약물과는 차이가 있었다.

잠재적 약물남용 정도

대상자의 잠재적 약물남용 정도를 선별하기 위해 사용한

SPDA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약물영역의 하부요인인 음주요인은 평균 10.0점으로 나타났고, 흡연은 6.2점, 약물은 7.5점으로 나타났다. 부모영역의 하부요인인 부모관계 요인은 평균 8.7점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약물행동인지는 6.3점으로 나타났다. 학교 및 친구영역의 하부요인인 학교 및 친구요인은 평균 5.8점으로 나타났고 개인영역의 하부요인인 과감성 및 충동성은 평균 4.2점으로 나타났고 개인적 성향은 10.0점으로 나타났다. 전체 점수는 평균 57.1점으로 나타났다.

현재 약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약물사용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집단인 '약물남용 잠재군'을 가려내기 위해 SPDA의 총점 73점을 기준으로 절단하였을 때 전체대상자 중 18.6%가 이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나머지 81.4%가 현재 약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 약물사용 가능성이 낮은 집단인 '약물남용 비잠재군'으로 분류되었다.

약물남용 비잠재군과 잠재군의 제특성별 차이 분석

약물남용 비잠재군과 잠재군의 제특성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는 <표 4>과 같다.

<표 2> 대상자의 약물사용 빈도

(N=458)

구 분	사 용 빈 도					
	거의 매일 n(%)	1-2번/1주일 n(%)	1-2번/1달 n(%)	1-2번/6개월 n(%)	1-2번/1년 n(%)	전혀없다 n(%)
담배	33(7.2)	1(0.2)	36(7.9)	38(8.3)	24(5.2)	326(71.2)
술	14(3.1)	18(3.9)	34(7.4)	6(1.3)	67(14.6)	319(69.7)
본드					2(0.4)	456(99.6)
각성제			1(0.2)	1(0.2)		456(99.6)
수면제			15(3.3)	1(0.2)	2(0.4)	440(96.1)
대마초						458(100.0)
기타 마약류			1(0.2)	1(0.2)		456(99.6)

<표 3> 대상자의 잠재적 약물사용 정도

구분	요인	평균(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약물	음주	10.02(4.94)	6	24
	흡연	6.19(3.59)	4	16
	약물	7.48(3.84)	6	24
부모	부모관계	8.67(3.96)	6	22
	부모의 약물행동인지	6.34(2.53)	3	12
학교 및 친구	학교 및 친구	5.77(2.39)	4	15
개인	과감성 및 충동성	4.24(1.72)	2	8
	개인적 성향	10.02(4.14)	5	15
전체		57.11(21.52)	35	130
	총점 73점 이상		85명(18.6%)	
	총점 73점 미만		373명(81.4%)	

<표 4>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약물사용 비잠재군과 잠재군의 차이 분석 (N=458)

특성		비잠재군(N=373) n(%)	잠재군(N=85) n(%)	chi-square	p
성별	남성	207(55.5)	49(57.6)	.130	.809
	여성	166(44.5)	36(42.4)		
학년	1학년	113(30.3)	23(25.9)	.648	.510
	2학년	260(69.7)	62(74.1)		
종교	있음	140(37.5)	46(54.1)	7.894	.007*
	없음	233(62.5)	39(45.9)		
형제	있음	107(30.4)	33(42.9)	4.461	.044*
	없음	245(69.6)	44(57.1)		
부모결혼상태	이혼하지 않음	22(5.9)	14(16.5)	12.105	.002*
	이혼 함	337(90.6)	66(77.6)		
	별거 등 기타	13(3.5)	5(5.9)		
거주상태	부모와 함께 동거	358(97.0)	74(88.1)	12.325	.002*
	자취 및 하숙	11(3.0)	10(11.9)		
한달용돈	100,000 이하	297(90.5)	49(83.1)	2.968	.105
	110,000 이상	31(9.5)	10(16.9)		
건강상태지각	건강함	240(64.3)	39(45.9)	31.386	.001*
	보통	97(26.0)	18(21.2)		
	건강하지 않음	36(9.7)	28(32.9)		

* p<.05

종교와 약물사용 비잠재군과 잠재군을 교차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종교를 가진 대상자의 잠재군의 비율이 비잠재군의 비율(37.5%)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와 약물사용 비잠재군과 잠재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형제가 있는 대상자의 잠재군의 비율(42.9%)이 비잠재군의 비율(30.4%)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이혼과 약물사용 비잠재군과 잠재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부모의 이혼 대상자의 잠재군의 비율(16.5%)이 비잠재군의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와 함께 생활 하는 것과 약물사용 비잠재군과 잠재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대상자의 잠재군의 비율(88.1%)이 비잠재군 비율(97.0%)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 지각에 따른 약물사용 비잠재군과 잠재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대상자의 잠재군의 비율(45.9%)이 비잠재군 비율(64.3%)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논 의

청소년의 약물사용은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 즉 가족 및 부모요인, 또래 요인, 학교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들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여 청소년의 약물남용 문제를 발견하거나 확인하는 것이 다측면적인 요소에 의해 야기되는 청소년의 약물남용 현상의 특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약물남용 후 사후증재보다 약물남용 전 예방증재가 중요한 청소년의 약물특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2003). 이는 현재 약물남용 문제가 있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약물남용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는 집단을 발견하여 약물예방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SPDA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18.6%가 약물남용 문제가 있거나 앞으로 약물남용문제의 가능성이 있는 '약물남용 잠재군'으로, 81.4%가 약물사용을 하지 않는 '약물남용 비잠재군'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2003)의 대상자의 9.1%가 '약물남용 잠재군'으로, 90.9%가 '약물사용 비잠재군'으로 분류된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 청소년의 술, 담배 및

기타 마약류에 대한 비율이 점점 증가추세에 있고 정도도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회현상을 반영한 결과로 추측된다. 또한 고등학생의 '약물남용 잠재군'이 36.3%로 중학생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2003), 추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약물남용 비잠재군과 잠재군의 특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 종교, 형제유무, 부모의 이혼여부, 부모와의 동거상태, 건강상태지각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종교와 약물남용 비잠재군과 잠재군을 교차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종교를 가진 대상자에서 종교를 가지지 않은 대상자보다 약물남용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an(1999)의 연구에 의하면 중학생의 약물남용 태도 및 행동에 종교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독교나 불교 등의 종교를 가진 대상자가 종교가 없는 대상자보다 약물남용 태도 점수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흡연이나 특히 술을 금기시하는 기독교 등의 종교적 태도가 청소년의 약물남용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반적 생각과 다른 결과로 나타났는데, 추후 좀 더 많은 대상자를 통해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형제의 유무와 부모의 이혼상태, 부모와 동거여부도 약물사용 비잠재군과 잠재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형제가 있는 대상자가 형제가 없는 대상자보다, 부모가 이혼한 대상자에서 부모가 이혼하지 않은 대상자보다 약물남용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와 함께 생활하지 않는 대상자에서 약물남용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 등에 의해 흡연을 하기도 하고(Jessor & Jessor, 1984), 사회에서 격리될 때도 음주를 하게 된다고 하였다(Delfino & Martha, 1997). 부모나 형제가 알코올이나 약물남용문제를 가진 경우 약물사용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2003), 부모가 재정적 뒷받침이나 양육을 제대로 못하면 청소년에게 분노, 공포, 외로움, 우울감, 불안정감을 경험하게 되며, 이런 상황에서 약물을 복용하고 약물에 의존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근거해 볼 때 부모의 이혼이나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환경은 부모자녀 관계나 애착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한 외로움, 소외감, 불안정감 등을 경험하게 되며 약물사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추측된다. 형제가 있는 대상자가 형제가 없는 대상자보다 약물남용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추후 형제의 약물남용 여부를 좀 더 면밀히 조사하여 청소년의 약물남용과 관련성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각된 건강상태는 약물사용 비잠재군과 잠재군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건강하지 못하다고 지각하는 대상자에서 약물남용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약물남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데, 사회적 측면에서 청소년 비행이나 다른 범죄와 관련되며(Chein, 1980;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1989), 개인적 측면에서 약물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의존뿐만 아니라 신체적 의존까지 갖게 된다(Chang, 1990). 이러한 약물의존은 약물을 주기적으로 계속 사용하게 되며,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성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질 수 있는 판단력, 신념과 건전한 도덕 및 가치관을 내면화 하는데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약물사용을 하고 있는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상태를 사정하고 이들의 건강위해 행위를 건강증진생활양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약물예방 교육을 실시할 때 약물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약물남용은 약물남용하는 자체만을 비행으로 보고 면담과 그 행동을 변화시키려고만 하였지 약물남용을 하게 된 환경적 배경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다(Kim, Min, & Lee, 1988).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약물남용 잠재군의 특성으로 파악된 이들 변인들에 대한 좀 더 면밀한 파악들이 필요하다. 아울러 효과적인 청소년 약물남용 교육을 위해서는 약물남용 잠재군과 비잠재군을 선별하여 이들 집단의 특성에 적합한 약물남용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전달할 전문인력을 개발,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즉, 약물남용 잠재군은 현재 약물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앞으로 약물사용가능성이 높은 군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요인들을 중점적으로 보다 약물남용 잠재군의 특성별 관리에 대한 방안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선별척도에서 잠재군으로 분류된 청소년 집단에게는 중독의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지역사회내의 병원에 의뢰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며, 비잠재군으로 분류된 집단에 대해서는 약물사용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집단별로 차별화된 접근전략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잠재군으로 분류된 집단의 특성 중 가족들의 지지체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모가 이혼하고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다측면적인 요소에 의해 야기되는 청소년 약물남용 현상은 지역정신보건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가족상담소 등 관련 기관의 연계망을 통한 다각적인 지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약물남용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단계로 선별도구를 사용하여 약물사용 빈도가 높은 잠재군의 파악과 이들 잠재군의 특성일 파악하여 약물사용 예방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현재 흡연율은 23.6%, 음주는 16.2%로 나타났으며, SPDA를 사용하여 절단점 73점을 기준으로 '약물남용 비잠재군'과 '잠재군'을 선별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81.4%가 '약물남용 비잠재군'으로, 18.6%가 '약물남용 잠재군'으로 분류되었다.

'약물남용 비잠재군'과 '잠재군'의 특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 종교, 형제유무, 부모의 이혼여부, 부모와의 동거상태, 건강상태지각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약물남용 위험성이 높은 잠재군은 종교가 있고, 형제가 있으며, 부모가 이혼하거나 부모와 함께 생활하지 않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지각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가족들의 지지체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모가 이혼하여 따로 거주하는 청소년은 약물남용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첫째, 본 연구를 대상자를 달리하여 초등학생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 둘째, 약물남용 잠재군과 비잠재군의 특성을 보다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약물남용 잠재군과 비잠재군의 특성에 따른 약물남용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Burge, V., Felts, M., Chenier, T., & Parrillo A. V. (1995). Drug use, sexual activity and suicidal behavior in U. S. high school students. *J Sch Health*, 65(6), 222-227.
- Chang, S. H. (1990). Toward a social-psychological theory of adolescent drug abuse. *Soc Sci*, 9(1), 1-20.
- Chein, I. (1980). Psychological, social and epidemiological factors in juvenile drug abuse. In Dan J. Lettieri et al., (Eds.), *Theories on Drug Abuse: Selected Contemporary Perspectives*. Rockville, Md. :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 Cho, Y. J., & Joo, Y. G. (1997). National survey on adolescent drug abuse. *J Korean Adolescent*, 4(1), 169-181.
- Chong, H. S. (1998). The drug abuse and prevention a counter measure of youth. *J Pyong Taek*, 10(1), 113-138.
- Delfino, V., & Martha, A. R. (1997). Alcohol use from early to middle adolescence: A Longitudinal Approach. *Soc Res Child Develop*.
- Golub, A., & Johnson, B. D. (1999). Coerced treatment for drug-abusing criminal offenders: A referral device for use in New York City. *International J Public Adm*, 22(2), 187-215.
- Han, S. H (1999). A study on the factors in relation to attitude and behavior of drug abuse in middle school students. *J of Korean Soc of School Health*, 12(1), 57-70.
- Jeong, S. K. (2004). A study on the intervention to the family centered program with drug abused adolescent. *Social Business and Mental Health*, 17, 104-132.
- Jessor, R., & Jessor, S. L. (1984).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twelve years prospective study of problem behavior and psycho-social development, In S. Mednish & M Harway(Eds), *Longitudinal Research in The United State*. New York: Praeger.
- Kim, H. S., Min, B. K., & Lee, C. (1988). Environmentally psycho-dynamic approach to juvenile drug abusers. *Chung-Ang J of Med*, 13(4), 491-497.
- Kim, S. E. (2002). *Introduction of substance abuse*. Seoul: Yangseowon.
-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1998). *The training of education program for specialist to the drug counselling*. Seoul: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2003). *A survey and development of a screening scale for potential drug-use adolescents(SPDA)*. Busan: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1989). *Research : a survey and policy of methamphetamine*. Seoul: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Lee, K. Y., Im, H., Park, M. J., Yun, S. H., & Park, S. H. (2004).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reening scale for potential drug-use adolescents(SPDA). *Social Business and Mental Health*, 17, 133-157.
- Min, Y. S. (2000).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WEB instruction programs for drug abuse prevention in korean adolescents. *J Korean Acad Nurs*, 30(4), 1055-1065.
- Moon, J. S. (2003). A study on substance abuse,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substances in the elementary students.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9(4), 432-440.
- O'Leary T. A., et al. (2002). Treating adolescents together or

individually? Issues in adolescent substance abuse interventions. *Alcohol Clin Exp Res.* 26(6), 890-899.
Won, S. D. (2003). *A Study on the establishing of the*

effective adolescent drug abusing prevention program.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sung university, Seoul, Korean.
